



복음나누기

연중 제19주일(8월 10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32-48)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작품은 세 폭의 제단화처럼 구성되어 있다. 왼쪽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불을 밝히고, 가운데 있는 신랑과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미련한 처녀들은 빈 등잔을 들고 당황해한다. 신랑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슬기로운 처녀는 참된 제자를, 미련한 처녀는 거짓된 제자를 의미한다.

작가 실바노 수사 | 혼합 재료, 개인 소장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7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12장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2 “너희들 작은 양 때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산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34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41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43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나는 행복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깨어 있는 삶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생에 한 두번 밖에 오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하리라 마음먹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끝났다고 다짐한 일이 있다면 지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어울리는 삶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장소에도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몸은 성당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다면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는 기도해야 하고 일하는 곳에서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몸은 핸들을 잡았는데 정신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앞날을 걱정하느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장차 올 일도 미리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고 앞날 걱정 때문에 묶여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는 그랬더라도 오늘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12, 40]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대립과 갈등 줄이기) 교황님 8월 기도지향 ‘상호 공존’에 따라

- 공동체와 함께 -

① 갈등 상황 속에 처한 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기억하기

- 내 삶 속에서 -

①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 진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기
②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7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